



한진중공업이 수주한 대목적 대형방제선

/연합뉴스

한진중, 국내 첫 다목적 대형방제선 수주

700억1500만원에 건조계약 체결

한진중공업은 해양환경공단이 발주한 5000톤(t)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수주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달 23일 해양환경공단의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입찰 결과 우선협상 1순위 대상업체로 선정된 데 이어 실사와 계약조건 협상 등을 거쳐 700억1500만원에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다목적 대형방제선은 길이 102m, 폭 20.6m 규모로 각종 해난 및 해양오염 사고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양부유물을 수거하고 선박 화재 진압, 비상 예인, 준설 등 복합기능도 수행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500톤(t) 미만 중소형 방제선 60여척을 운용했으나 기상 악화 때 사고 현장 접근이 어려워 대형방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내 최초로 건조될 다목적 대형방제선은 평상시에는 준설 작업, 해양부유물 수거, 타선 소화, 비상 예인 등에 활용하며 해양오염 사고 발생 때 즉시 방제작업에 투입한다.

과고 4m, 풍속 약 10.7m/s 안팎 약 천후에도 안전하게 출동해 초동 방제작업을 할 수 있다.

약 15m에 달하는 스윙핑 암(오일펜스와 선박을 연결해 펜스 형태를 유지하는 장치)을 이용해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채빙선, 탐사선 등 특수목적선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완벽하게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다목적 대형방제선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건조돼 2022년 해양환경공단에 인도될 계획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중고차시장 지각변동 예고 동반위, 대기업 진출 허용

제 58차 동반성장위원회

중고차판매 생계형업종 부적합 판단

매매업계 "95% 이상 영세사업"
대기업 받 들이면 생존권 위협

국내 대기업이 그동안 규제에 막혀 중고차 매매업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해 중고자동차 판매업(이하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최종 결정은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6개월 내에 내린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중고차판매업에서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산업경쟁



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반위는 완성차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에 발생할 영향이나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소상공인간의 능력차이에 대한 취약성 등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할 방침이다. 규제에 의해 실장점유율이 낮아진 상황에서 규제가 풀리면 시장점유율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고차 시장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되며 대기업들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2016년 다시 3년의 기간이 연장되면서 대기업은 매장 수를 동결해야 했다. 결국 SK 그룹은 사업을 정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중고차 매매업계에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95% 이상이 영세하게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받 들면

경우 생존권을 위협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양대 단체는 8일 간담회를 열어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이번 의결에 따라 중고차판매업 실태조사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서럼 결과를 포함한 생계형 적합업종 의견서를 중소기업벤처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따른 영향, 간접적인 진입장벽 등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측면에 있어 대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소상공인과 협력하여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성준 기자 ysw@metroseoul.co.kr

금융·보험사, 위기의 알뜰폰 구원투수 될까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 시범가입 시작
교보생명

보험료 납부 감면 등 이중할인 적용

통신·보험-금융 융합으로 시장 활성화

첫 인상은 깔끔하다. 1기가바이트(GB)부터 11GB플러스까지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도 두 종류 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4월 시범 가입을 시작한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 Liiv M)' 얘기다.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통신·보험-금융 간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위기에 놓인 알뜰폰 시장이 부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통신·보험-금융 융합으로 쪼그라들던 알뜰폰 시장 규모가 늘어나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KB국민은행이 리브엠 시범 가입을 시작한 데 이어 KEB하나은행은 연내 SK텔링크의 알뜰폰 전용 요금제에 금융 할인을 결합한 요금상품 출시를 추진한다. 교보생명 또한 지난달 SK텔링크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연내 보험 상품과 알뜰폰 통신 요금을 결합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금융사가 알뜰폰 사업자로서 나선 사례라면, KEB하나은행과 교보생명은 금융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손잡고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결합해 내는 식이다. KT에서도 내부적으로 금융사 제휴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시장에서 이 같은 금융·보험-통신 융합은 점차 가속화 될 것으로



'리브엠' 모바일월 갈무리.

보이고 있다. 금융 서비스 또한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새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알뜰폰 시장은 침체기로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알뜰폰 서비스 가입자는 지난 9월 말 현재 796만명을 기록했다. 가입자 800만명의 벽이 깨진 셈이다. 특히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2011년 사업이 개시된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2월 처음으로 역성장해 침체일로로 접어들었다.

알뜰폰의 침체 원인으로는 역설적이게도 저렴한 요금제가 꼽힌다. 소비자가 저렴한 요금제는 알뜰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혜택을 찾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단순 요금 경쟁만이 아니라 비통신영역을 통한 요금 결합

서비스, 부가 서비스 등으로 경쟁을 할 시점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서로 시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금융사들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통해 인식을 개선하고 주목을 끌어 시장이 탄력받아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이 내놓은 리브엠은 내달 중순부터 셀프 개통, 친구결합 할인, 유심 인증서 등이 단계적으로 도입돼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친구결합의 경우 1인당 월 22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3회선까지 가능해 최대 66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친구결합의 경우 기존 이동통신사의 가족결합 등에서 나아간 것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면 업계에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은 이날 리브엠의 통신비 자동 납부 시 월 최대 1만5000원 할인 혜택을 주는 카드 상품 2종을 출시하기도 했다.

교보생명이 연내 SK텔링크와 손잡고 내놓을 알뜰폰 요금제는 자사 보험 설계사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이용자들도 보험료 납부 감면, 통신 요금 할인 등 이중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향후 금융·보험 등의 연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KB, 하나은행, 교보생명 등의 참전으로 알뜰폰의 외형적 숫자가 늘어나고 고객센터 등 서비스 품질도 향상돼 기존 사업자들도 새로운 서비스를 내며 대응해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넷마블 방준혁 의장이 수상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넷마블

방준혁, 최우수 기업가상 수상

(넷마블 의장)

EY한영 최고영예 마스터상
"가장정신으로 미래 위해 노력"

방준혁 넷마블 의장이 EY한영으로부터 최우수기업가 마스터상을 수상했다.

넷마블은 지난 5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주최한 '제 13회 EY 최우수 기업가상'에서 넷마블 방준혁 의장이 최고 영예의 마스터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모범적인 기업가에게 EY가 수여한다. 독립적인 심사위원단(위원장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이 약 6개월에 걸쳐 6가지 평가 기준인 ▲기업가 정신 ▲가치 창출 ▲전략적 방향 ▲국내 및 세계적 영향력 ▲혁신성 ▲개인적 품성 및 리더십에 따라 심사를 진행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마스터상을 수상한 넷마블 방준혁 의장은 내년 6월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열리는 'EY 세계 최우수 기업가상'

시상식에 한국 대표 기업가로 참가해 전 세계 약 50개 국가, 145여개 도시에서 선정된 최고의 기업가들과 세계 최고 기업가상을 놓고 경합한다.

넷마블 방준혁 의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저의 기업가정신은 어려운 환경이라도 가족과 자식의 미래를 위해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가장의 '가장정신'과 맞닿아 있다"며 "이 상은 넷마블을 직원의 행복은 물론 사회발전에도 기여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 시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번 EY 최우수 기업가상에는 넷마블 방준혁 의장 외 산업부문 아이디스 홀딩스 김영달 대표, 패밀리비즈니스 부문 이견산업 박영주 회장과 박승준 사장, 여성 기업가 부문 우신피그먼트 장성숙 대표, 젊은 기업가 부문 해브앤비 이진욱 대표, 라이징스타 부문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성상엽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나인 기자